

6·25전쟁기 평양의 전시폭격과 도시방공정책(1950~1953)*

김태윤**

한국전쟁은 연구주제의 중요성만큼 다방면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전쟁이 도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파괴’에 대한 서술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분석된 적이 없다. 해방 이후 서울과 평양 모두 도시사적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성과가 적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지만, 일부 전쟁과 도시를 언급한 연구들도 도시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확한 파괴상, 재건되는 도시에 투영된 이념 이전 도시구성과의 차이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완벽한 파괴 위에 재건된 도시”라는 전후 평양의 서술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아직까지도 평양에 폭격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라는 기초적인 의문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평양의 전쟁 전 도시구성과 전후 도시구성의 차이 또한 분석이 시도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6·25전쟁으로 인해 평양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완벽한 파괴’가 사실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을 1차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공군의 폭격이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 배경에 대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6·25전쟁, 극동공군, 제5공군, 극동공군폭격기사령부, 평양, 폭격, 방공,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 전후재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6199).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리말

'6·25전쟁'이 한반도에 가져온 충격만큼 '냉전'과 '6·25전쟁'은 현대사 연구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연구주제이다. 6·25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사적 연구에서부터 마을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6·25전쟁이 마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까지 그 분야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으며 자료발굴 또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전쟁이자 냉전시기 일어난 열전(熱戰)이었고, 국제전이었던 6·25전쟁은 그만큼 연구사적으로 무게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주제의 중요성만큼 다방면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6·25전쟁기 폭격을 주제로 한 연구는 몇몇 대표적인 연구만이 있을 뿐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 또한 몇몇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참고하여 평양지역에서 이루어진 미공군의 폭격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연구성과 중 먼저,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ROBERT F. FUTRELL의 연구¹⁾는 1차 사료와 당시의 보고서를 활용해 6·25전쟁의 폭격 양상, 폭격부대의 배치 등 개략적인 내용을 방대하게 정리하고, 많은 정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폭격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외에도 한국 공군대학에서 극동공군의 활동을 정리한 자료집 형태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 또한 미공군의 입장에서 서술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²⁾ 김태우의 연구

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1983.

2) 강임구·정남범, 『6·25전쟁과 항공전: 미국동공군의 활약을 중심으로』(계룡: 공군대학,

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시각을 벗어난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³⁾ 김태우는 현재까지 공개된 방대한 미공군 문서를 섭렵한 뒤, 6·25전쟁 기간 동안 폭격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게다가 파괴일변도로 해석되어 오던, 평양폭격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공군과 북한 측의 입장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또한 김태우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평양지역의 폭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미·극동공군 편대의 체제, 폭격의 전체적인 양상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6·25전쟁기 폭격에 대한 정보는 선행연구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편이지만, 아직까지 폭격이 전쟁 이후 공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의 재편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전쟁 연구가 서울과 평양 모두 도시사적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성과가 적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지만, 일부 전쟁과 도시를 언급한 연구들도 도시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확한 파괴상, 재건되는 도시에 투영된 이념 이전 도시구성과의 차이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 특히 주요 관공서, 철도수리공장, 화물집하장, 병기제조소 등이 위치하고 있던 평양의 경우 미군의 폭격이 집중되었는데, 스트레이트 마이어가 언급했던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작전”⁴⁾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의 상당부분이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여러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폭격 양상에 대한 서술을 그대로

2002).

3) 김태우, 『폭격』(파주: 창비, 2013), 91쪽.

4) 윌리엄 T. 와이블러드(William T. Y'Blood), 『극동공군 사령관 조지 E.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의 6·25전쟁 일기』, 문관현 외 옮김(서울: 플래닛미디어, 2011), 322쪽.

받아들여 전후 평양의 도시재건은 백지에서 시작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쟁기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어 온 이유는 연구의 대상 시기가 주로 북한에서 편찬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관찬 자료 중에서도 북한 도시·건축 연구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조선건축사』⁵⁾의 서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 특히 1960년대 이후 생산된 자료는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서술방식이 공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교차검증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전쟁기 미공군과 북한 내부 문건들도 ‘완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평양폭격의 신화가 지속적으로 수용되어 올 수밖에 없었다. 미공군의 경우 전쟁의 공을 과장하기 위하여 ‘완파’를 강조하였고, 북한의 경우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완파’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료를 통해 한국전쟁기 평양을 살펴보더라도 재고할 여지를 찾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완벽한 파괴 위에 재건된 도시”라는 전후 평양의 서술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의문점을 가지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평양에 폭격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라는 기초적인 의문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평양의 전쟁 전 도시구성과 전후 도시구성의 차이 또한 분석이 시도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양에 미 공군의 첫 폭격이 이루어진 날을 기점으로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6·25전쟁으로 인해 평양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완벽한 파괴’가 사실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을 1차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공군의 폭격이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라는 이

5) 리화선, 『조선건축사(2)』(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미지가 형성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 배경에 대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전시 도시방공체제와 전시행정체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평양에 이루어진 폭격 양상과 파괴된 공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미공군이 남긴 보고서와 북한에서 당시 생산된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미공군이 남긴 문서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문서군 중 RG 342군의 문서에서 제5공군(Fifth Air Force, FAF)이 찍은 사진과 작전·폭격기록들을 살펴보고, RG 554)문서에서는 극동공군(Far East Air Force, FEAF) 폭격기사령부(FEAF Bomber Command) 주간보고서를 통해 6·25전쟁기 평양에 이루어진 폭격기록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평양에 이루어졌던 폭격 양상을 선행연구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미공군이 남긴 문서와 더불어 그들이 보고를 위해 찍었던 폭격 전후의 사진자료도 함께 분석하였다. 사진자료의 경우 명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파괴상과 파괴된 지역들을 일일이 지도와 대조하여 폭격이 이루어진 지역을 보다 명확하게 확정하였다. 그리고 6·25전쟁 이후 평양에서 발간한 『평양지』⁷⁾에 나오는 기록과 사진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보충하였다. 이 외에도 『노동신문』을 비롯하여 NARA의

6) RG 554는 맥아더가 지휘한 세 개의 사령부, 즉 극동군사령부(FEC), 연합군총사령부(SCAP), 유엔군사령부(UNC)가 생산한 문서들을 담고 있다. RG 332(2차 세계대전기 미 전구문서, 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orld War II)문서와 RG 338(미 육군 작전, 전술, 지원조직 문서,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문서의 일부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재정리로 RG 554로 통합되었다. RG 338에서 이관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자료는 6·25전쟁 이전의 한국군에 대한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

7) 평양항토사편찬위원회, 『평양지』(평양: 국립출판사, 1957).

RG242 문서군의 노획문서 속에서도 북한의 방공정책과 도시복구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평양폭격의 일지와 사진자료들의 폭격 위치 등은 해방 이후 만들어진 평양지도 위에 표시하여 그 규모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정리하였다.

2. 평양의 도시적 특수성과 평양 폭격의 피해 규모

6·25전쟁 개전 이후 먼저 제공권을 장악한 미 공군에게 정치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였던 평양은 중요 폭격목표가 되었다. 게다가 평양에는 일제시기 조성된 철도 조차장과 무기공장, 경공업 공장지구 등 전략폭격의 목표가 되는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폭격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재고해 볼 여지’라는 것은 폭격피해의 정도가 아니라 폭격이 이루어진 공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다수의 민간인 희생을 야기한 무차별폭격과 원폭 공격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으로 이후 정밀폭격원칙을 세워 민간인의 무분별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⁸⁾ 이 때문에 미 공군은 전쟁 초기부터 주로 폭격목표가 있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차단작전’⁹⁾과 ‘전략폭격’¹⁰⁾이라는 2가지 작전개념하에 폭격을 실시하였다.¹¹⁾ 평양은

8) 김태우, 『폭격』, 91쪽.

9) 적의 병력과 물자가 전선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적 후방의 교통중심지, 도로, 철도, 병력 이동로, 이동병력의 숙소 등을 폭격하는 항공작전을 말한다.

10) 적의 전쟁수행 능력 또는 전쟁의지를 없애기 위해 도시나 주요 생산시설, 동력시설, 교통·통신시설, 정치·군사의 중추부, 미사일 및 전략공군기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폭격이다.

11) 김태우, 『폭격』, 104~105쪽.

6·25전쟁 개전 직후 가장 먼저 폭격 목표가 되었는데, 당시 극동공군이 제공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평양비행장을 최초목표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양지역은 첫 공격 이후 한동안 극동공군의 주요 작전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극동공군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한 제공권의 우위를 점하게 되어 이후 폭격기 사령부의 작전이 남한 전선지역 근접지원 작전이나 원산 같은 동북해안 산업지대 파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평양은 7월 20일경에 이르러서야 목표물 리스트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¹²⁾ <표 1>은 미군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미군의 평양 공격일 및 폭격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평양 폭격은 1950~1953년 정전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평양의 어느 지역에 폭격이 주로 집중되었는지, 그리고 폭격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폭격이 이루어진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는 미 공군 문서와 북한 측 자료를 보더라도 언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6·25전쟁 당시 미 공군이 평양 폭격작전 수행 시 남긴 사진 자료를 기반으로 평양 시내에 폭격이 이루어진 공간을 찾아 분석하였다.¹³⁾ 먼저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화했던 폭격 양상을 살펴보면, 1950년대 평양에 이루어진 폭격은 미 공군의 폭격지침이었던 ‘차단작전’, ‘전략폭격’을 목표로 한 ‘정밀폭격’

12) 위의 책, 120쪽.

13) 사진 자료는 미 공군이 6·25전쟁 기간 남긴 문서 중 RG 342문서에 포함된 제5공군(Fifth Air Force, FAF)이 찍은 사진과 작전·폭격기록 및 RG 554문서의 극동공군(Far East Air Force, FEAF) 폭격기사령부(FEAF Bomber Command) 주간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각 문서군에서 6·25전쟁기 평양에 이루어진 폭격기록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1〉 6·25전쟁기 평양 폭격

	일자	공격부대	폭격지역과 규모
1	1950년 6월 29일	3폭격전대	B-26기 18대가 최초의 공격으로 평양의 비행장을 공격, 적항공기 1대가 격추되고 비행장에 있던 평양의 전투가 25대가 파괴
2	1950년 7월 3일	영국군 및 미국군항공모함 비행대대(7함대)	영국군 및 미국군항공모함 비행대대가 평양비행장, 평양 곡산공장, 창고, 철도시설 등을 공습
3	1950년 7월 4일	영국군 및 미국군항공모함 비행대대(7함대)	영국군 및 미국군항공모함 비행대대(7함대) 오전 전차거리, 시인민위원회 앞, 오후 서평양 상흥리, 평천리 주택지구에 공습
4	1950년 7월 10일	19폭격전대	B-29기 평양의 중요 산업목표물을 폭격
5	1950년 7월 18일	77기동부대	2번의 폭격 진행. 14개 이상의 비행장을 폭격
6	1950년 7월 20일	77기동부대	B-29기 14대가 평양비행장과 서구 청암리 미산리에 폭격
7	1950년 7월 22일		18대가 출격 평양비행장을 폭격, 전투기 25대가 파괴
8	1950년 7월 23일		B-29기 6대가 평양조차장을 공격 (평양공대, 서평양인민병원, 연화리교회, 박구리교회 등이 파괴)-레이더 폭격
9	1950년 7월 27일		B-29기가 폭탄을 투하하여 평양 북부에 위치한 철교 파괴
10	1950년 7월 28일		B-29기 7대를 동원하여 평양조차장을 공격
11	1950년 8월 7일	98폭격전대	B-29기 49대가 출동, 평양무기고 및 조차장, 농림성,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남평양내무서, 평양남도인민위원회, 남구검찰소, 역전 리 인민위원회, 동흥리 인민위원회, 철도, 우편국 등의 국가기관과 공업대학, 2개의 신문사, 평양 제10인민학교, 국립교육도서출판사, 교통성, 중앙병원, 중앙 결핵진료소 등을 파괴
12	1950년 8월 8일	307폭격전대	평양조차장 폭격
13	1950년 8월 21일	19폭격전대	미군 폭격기 8대가 서평양지구에 폭격
14	1950년 8월 22일		미군 폭격기 7대가 문수리와 류성리의 주택지구 폭격

15	1950년 8월 30일		평양연초공장과 방직공장 폭격, 능라도 수원지 폭격
16	1950년 9월 8일		B-29기 4대가 500파운드의 폭탄을 장착하여 서울-평양 간 철도 차단을 계획
17	1950년 9월 12일		B-29기 평양무기고 폭격, 228톤의 폭탄이 투하됨.
18	1950년 9월 20일	6사단	B-29기 평양 조차장 및 77육군막사 등을 폭격
19	1950년 10월 1일		B-29기 평양 군수품 저장소 폭격
20	1950년 10월 19일	국군의 평양 점령	
21	1950년 11월 1일		B-29기 평양 무기고와 평양 철도역, 군사 훈련 지역 폭격
22	1950년 11월 5일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폭격전 진행, 본격적으로 소이탄 사용을 시작함.	
23	1950년 12월 6일	인민군의 평양 점령	
24	1950년 12월 10일	19폭격전대	B-29기 평양 비행장 폭격
25	1950년 12월 14일	19폭격전대	B-29기 평양 조차장 폭격
26	1951년 1월 1일		B-29기 평양 폭격 제4후방차단작전 (Interdiction Campaign Number 4) 전용
27	1951년 1월 3일	98폭격단	B-29기 67대가 평양을 폭격(최대한의 소이탄 공격), 북한 측은 B-29기 80대가 동원되었다고 주장
28	1951년 1월 5일	98폭격단	B-29기 59대가 평양을 폭격 (최대한의 소이탄 공격)
29	1951년 1월 20일	27비행단	조차장과 보급품 집적소에 폭격
30	1951년 1월 23일	27비행단	B-29기 노동자들이 복구해 놓은 비행장을 폭파, 30대의 MIG와 교전
31	1951년 1월 26일	49폭격전대 19폭격전대 307폭격전대	F-80중폭격기가 195톤의 폭탄을 투하 남아 있던 시설이 큰 손실을 입음
32	1951년 2월 10일		B-29기 12대가 70톤의 폭탄을 투하
33	1951년 2월 11일		평양의 조차장에 일반폭탄(GPBOMB) 114톤 투하

34	1951년 3월		북한 측이 평양 시가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비행장을 건설하는 등 2개월 동안 16개의 비행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함
35	1951년 4월 13일		북한 비행장을 제1폭격목표로 정하고 1일 평균 12대의 중폭격기를 출격시켜 안악, 신막, 순안, 사리원, 용주, 함흥, 연호, 강동, 온정리, 평양, 선교리, 미림 등 비행장을 폭격
36	1951년 4월 16일		B-29기 평양 선교리 비행장에 17,835톤 미림비행장에 90톤의 폭탄을 투하
37	1951년 5월 7일	98폭격전대	98전대의 B-29기 1대가 평양의 철도 조차장을 공격하던 중 폭파됨
38	1951년 5월 24일		미 5공군 452경폭격비행단 B-26 폭격기가 평양 서쪽의 창고 시설을 폭격
39	1951년 5월 28일	19폭격전대 307폭격전대	B-29기 공산군은 평양시가에 7,000피트(약 2,100m)에 달하는 비상활주로를 만들었는데, 이날 이 비행장 활주로를 폭격
40	1951년 6월 17일		평양비행장에 22대의 B-29기 168톤 이상의 폭탄 투하
41	1951년 7월 30일		354대의 전폭기를 투입하여 평양을 공격
42	1951년 8~12월 스트랭글작전(Operation Strangle)		
43	1951년 8월 2일		미 공군 항공기 평양폭격
44	1951년 8월 14일		미 공군 항공기 평양폭격
45	1951년 10월 10일		선교리 임시활주로에 폭격
46	1951년 10월 24일		평양 상공에서 공중전
47	1951년 10월 28일		폭격기사령부의 B-29기들은 1951년 10월 28일 마지막 주간 폭격을 수행한 뒤, 이후 모든 작전을 야간에 수행
48	1951년 10월 30일		평양 상공에서 공중전
49	1951년 11월 18일		평양 상공에서 공중전
50	1952년 3~5월 세처레이트작전(Operation Saturate)		
51	1952년 7월 11일 프레슈어펌프작전(Operation Pressure pump)		
52	1952년 7월 11일		54대의 B-29기가 폭격을 수행, 평양지역에 있는 8개의 보급소, 공장, 저장소 등에 표적에 대한 폭격작전을 수행(30개), 야간폭격도 진행

53	1952년 8월 4일		평양 지역 폭격
54	1952년 8월 20일		8시간에 걸쳐 평양지역 야간폭격
55	1952년 8월 29일		미 공군 4차에 걸쳐 평양시에 무차별폭격
56	1952년 8월 30일	19폭격전대	11대의 중폭격기를 평양의 몇몇 목표물에 보냈다.
57	1952년 9월 18일		B-29기 폭격기를 동원하여 21시부터 22시까지 폭격
58	1952년 9월 21일		B-29기 33대로 평양시 북구역 주민 지대를 야간 폭격
59	1952년 10월 16일		B-29기 폭격기 평양 주변 농촌지대 폭격
60	1952년 11월 8일	98폭격전대	B-29기 폭격기 평양 주변 폭격
61	1952년 12월 20일		B-29기 폭격기 평양 주변 폭격
62	1953년 2월 15일		평양 주변의 통신 및 라디오 송신국 공격

자료: <Record Group 342> Records of U.S. Air Force Commands,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1900~2003; <Record Group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 - 196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WASHINGTON, D.C, 1983; 윌리엄 T. 와이블러드 (William T. Y'blood), 『극동공군 사령관 조지 E.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의 6·25전쟁 일기』, 문관현 외 옮김(서울: 플래닛미디어, 2011); 조국전선조사위원회보도, 『미제와 리승만도당들의 죄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1951); 조선중앙통신사, 『해방 후 10년 일지』(1955);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평양향토사편찬위원회, 『평양지』(평양: 국립출판사, 1957)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공격부대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대명만 기입했다.

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폭격이 이루어진 공간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6·25전쟁시기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공장에 많은 폭격이 집중되었으며 평양에서는 공업지구인 선교리 근처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 당시 선교리에는 일제시기부터 있었던 방적공장과 평양곡물공장, 평양고무공장, 철공소 등 중소규모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주요 폭격목표가 되었다. 제공권 장악을 위한 첫 폭격 직후

인 6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공장지대를 향한 폭격은 지속되었다.¹⁴⁾ 특히 선교리 지역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를 가지고 있던 평양방직공장과 곡산공장은 7월 3일에 많은 폭격이 진행되었다.¹⁵⁾ 게다가 방직공장과 곡산공장은 위치상 평남선과 경의선이 지나가는 대동강역의 근처였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라는 면에서도 많은 폭격을 받았다. <그림 1>은 1950년 10월 27일 촬영된 선교리 공업지구 각 공장의 파괴 사진과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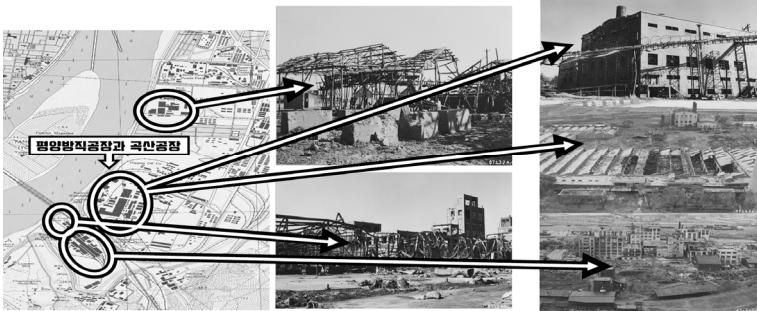
<그림 1> 이외에도 공장의 파괴 사진은 다른 사진 자료보다 많은 양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전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격목표가 되어 사실상 뼈대만 남아 있는 공장 사진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장지대였던 선교리에도 상당한 폭격이 이루어졌지만, 6·25전쟁 초기 미 공군의 폭격목표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곳을 뽑자면 평양무기고·공장 부근과 평양조차장이다. 이 근처에는 관사 등 주거지가 형성되어있었기 때문에 6·25전쟁 초기 민간인 피해도 무기고와 조차장 폭격 시에 주로 나타났다. 평양무기고·공장도 선교리 공업지대와 마찬가지로 평양역 근처였기 때문에 주요 폭격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평양무기공장은 7월 4일 처음으로 대규모 폭격을 받았는데, 이날은 원래 제공권 장악을 위하여 평양 비행장을 공격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취소되어 7월 3일의 연장선상에서 평양지역의 폭격목표에 다시금 폭격이 이루어졌다.¹⁷⁾ 전쟁 초기 평양무기공장에 이루어진 가장 큰

14) 평양항토사편찬위원회, 『평양지』, 445~446쪽.

15) 조국전선조사위원회보도, 『미제와 리승만도당들의 죄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1), 2~3쪽.

16)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1950), NARA, NASM 4A 38957; NASM 4A 38951; NARA, NASM 4A 38917; NARA, NASM 4A 38944; NARA, NASM 4A 38956.

〈그림 1〉 1950년 10월 27일 촬영된 선교리 공업지구 파괴 사진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1950), NARA, NASM 4A 38957; NARA, NASM 4A 38951; NARA, NASM 4A 38917; NARA, NASM 4A 38944; NARA, NASM 4A 38956.

〈그림 2〉 1950년 8월 7일 왼쪽부터 평양무기고폭격 전, 폭격 직후, 폭격 후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1950), NARA, NASM 4A 38969; NARA, NASM 4A 38976; NARA, NASM 4A 38970.

17) 폭격목표가 변경된 이유는 6·25전쟁 당시 제77기동부대의 지휘자였던 스트러블 (Arthur D. Struble)과 스트레이트 마이어의 의견차이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던 77기동부대의 항공기에 대한 권한이 스트레이트마이어에게 없었기 때문에 공격목표로 인한 충돌이 있었고, 결국 7월 3일은 스트러블의 의견대로 77기동부대가 평양을 폭격하였다. 강임구·정남범, 『6·25전쟁과 항공전: 극동공군의 활약을 중심으로』, 119쪽.

〈그림 3〉 평양무기고·공장의 위치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1950), NARA, NASM 4A 38969; NARA, NASM 4A 38976; NARA, NASM 4A 38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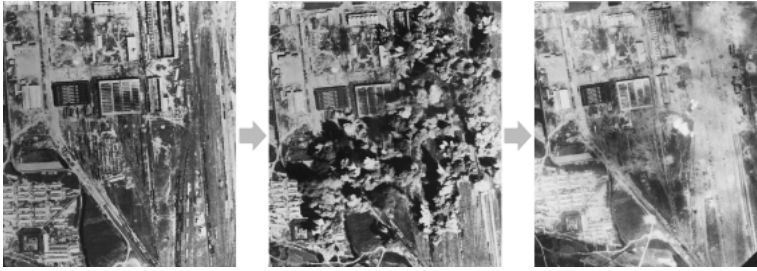
폭격은 8월 7일에 일어났다. 30여 대의 B-29기가 출동하여 460톤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던 대규모 폭격이었다. 이날 폭격은 평양역과 철도 노선, 근처의 주택지에도 이루어졌는데, 북한의 기록에서는 528호의 주택과 여러 문화시설들을 완파했다고 하여 폭격목표가 아닌 지역에 폭격이 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⁸⁾ 폭격의 피해가 컸다는 점은 미 공군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동안 재공격이 필요 없을 정도’,¹⁹⁾ ‘선로가 완전히 사라졌고, 철도역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폭격으로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이 사실상 둔화되었을 것이다’²⁰⁾라고 언급할 만큼 평양무기공장의 피해상은 심각했다. 다만 미 공군의 보고에는 철도와 철도조차장, 무기고 등 폭격목표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18) 조국전선조사위원회보도, 『미제와 리승만도당들의 죄악에 대하여』, 33쪽.

19)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1950), NARA, NASM 4A 38969.

20)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1950), NARA, NASM 4A 38970.

〈그림 4〉 1950년 8월 21일 왼쪽부터 평양조차장폭격 전, 폭격 직후, 폭격 후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1950), NARA, NASM 4A 38973; NARA, NASM 4A 38974; NARA, NASM 4A 38975.

민간인 지역에 이루어진 폭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평양무기공장이 있던 평천리에는 일제시기부터 주택지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장과 철도의 피해도 컸겠지만, 민간인이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초기 미 공군이 정밀폭격을 실시했음에도 민간인 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B-29기 자체가 적중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이루어졌던 폭격 또한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레이더 폭격은 육안 폭격보다도 부정확하고 무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폭격목표 이외의 공간에 폭탄을 투하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된다.²¹⁾

평양조차장도 마찬가지로 초기 미 공군의 군사목표였다. 조차장을 향한 대규모 폭격은 8월 21일에 있었고 B-29기가 8대가 출동하여 약 40여 대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조차장은 철도의 객차나 화차를 분리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본래 폭격 대상이었지만, 특히 평양조차장

21) 김태우, 『폭격』, 110쪽.

은 철도수리공장을 점하고 있었고 북한의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조차장보다 피해가 컸다.²²⁾ 게다가 조차장이 위치했던 서평양 지역 또한 평천리처럼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피해도 피할 수 없었다.²³⁾

피해는 큰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6·25전쟁 초기 미 공군은 ‘차단작전’과 ‘전략폭격’을 주로 하는 정밀폭격정책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 10월 중국군이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폭격정책이 ‘초토화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초토화정책’은 B-29기가 작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6·25전쟁 초기의 정책과 같았지만, 폭격에 이용되는 폭탄으로 소이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미군이 태평양전쟁기에도 사용한 바 있던 소이탄은 도시를 ‘전소(全燒)’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폭탄이었고, 소이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시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²⁴⁾ 소이탄을 실은 B-29기는 1950년 11월 4일 강계를 시작으로 11월 한 달 동안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여러 도시를 초토화했다.²⁵⁾ 이러한 초토화정책은 12월을 지나면서 점차 남하하였고, 평양에도 1951년 1월 3일과 5일 2차례의 소이탄 폭격이 이루어졌다.²⁶⁾

1951년 1월 3일 공격에서는 B-29기 폭격기 73대가 동원되었으며 소이탄 공격이 있었던 만큼 피해상은 계산이 안 될 정도 심각했다. 위의 <자료 3-4>는 1951년 1월 3일 미 극동 공군 98폭격단이 평양을 폭

22)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1950), NARA, NASM 4A 38973.

23) 조국전선조사위원회보도, 『미제와 이승만도당들의 죄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출판사, 1951), 40쪽.

24) 김태우, 『폭격』, 267~269쪽.

25) 위의 책, 292~3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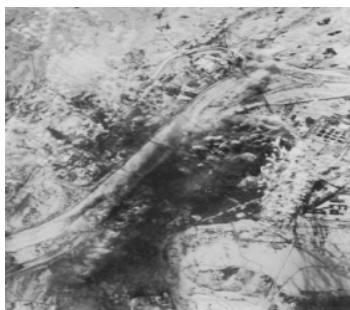
26)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1952), NARA, NASM 4A 38908; NARA, NASM 4A 38909.

〈그림 5〉 1951년 1월 3일 평양에 이루어진 소이탄 폭격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1952), NARA, NASM 4A 38908; NARA, NASM 4A 38909.

〈그림 6〉 1950년 1월 3일 소이탄 폭격 후의 평양 전체모습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1952), NARA, NASM 4A 38905.

격한 이후 찍은 사진이다. 대동강안을 따라 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의 폭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폭격의 규모를 살펴보면 1월 3일에는 B-29기 67대가, 1월 5일 59대가 평양에 소이탄 공격을 실시하였다.²⁷⁾

27) 김태우, 『폭격』, 305쪽.

1950년까지 평양에 이루어진 폭격은 주로 대동강 남쪽, 즉 양각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5>을 통해 보면, 대동강안 지역 대부분이 파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평양에 소이탄 공격이 가장 크게 이루어졌던 1월 3일과 5일 이후에도 대량의 폭격 양상은 유지되었다. 1951년 3월부터는 미 공군의 폭격 양상이 비행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5공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던 공군기지 파괴 임무와 연관된 것이었다. 공군기지 파괴는 개전 직후부터 주어진 임무로 6·25전쟁 개전 직후인 6월 28일에 B-26기 18대가 출동하여 제공권을 장악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²⁸⁾ 이렇게 전쟁 초기부터 제공권을 장악한 미 공군은 북한에 있는 여러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진행했으며 북한 측에서는 폭격으로 파괴된 비행장을 지속적으로 보수·확장하여 사용해 왔다.²⁹⁾ 제5공군은 이러한 비행장 보수공사를 공중공격을 감행하려는 의도라고 파악했고, 따라서 1951년 4월부터 북한의 비행장에 대규모 폭격을 실시하였다.³⁰⁾

비행장 폭격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동평양비행장과 미림비행장에 폭격이 계속되자, 도시시설을 활용해서 임시활주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³¹⁾ 임시활주로를 확인한 미 공군 또한 ‘평양에 흥미로운 비행장이 있다’, ‘비행장이 도시 중심가에 놓여 있다’³²⁾라고 언급했는데, 그 이

2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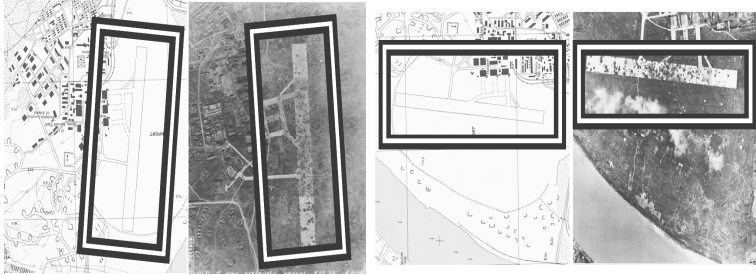
29) FEAF intelligence roundup, No.53, 1951.9.9, pp.10~13.

30) 박동찬, 「RG 342 6·25전쟁기 미 제5공군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문서 해제」, 『해외자료총서 7권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4).

31) 강임구·정남범, 『6·25전쟁과 항공전: 미 극동공군의 활약을 중심으로』, 119쪽.

32)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1951), NARA, NASM 4A 38991;

〈그림 7〉 1951년 12월 16일(좌), 1953년 9월(우) 평양비행장 폭격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1952), NARA, NASM 4A 38996; NARA, NASM 4A 39000.

유는 비행장에 설치된 활주로에 비해 임시활주로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양 내에 건설된 임시활주로는 일제시기 건설된 서선합동전기회사(西鮮合同電氣會社)의 전차노선을 따라 조성된 것으로, 평양비행장과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곧게 뻗어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임시활주로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활주로 또한 미 공군의 폭격 대상이 되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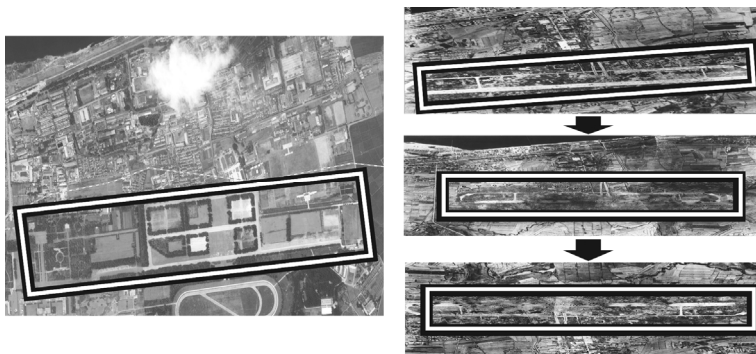
임시활주로와 더불어 흥미로운 지점은 북한의 엄폐술이다. 상공에서 봤을 때 활주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페인트칠을 하기도 하였고, 폭탄으로 생긴 구멍(crater)을 가짜로 만들어 붙여 놓기도 하였다.³⁴⁾ 이렇게 엄폐를 진행한 이유는 활주로를 수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폭격으로 주요 시설이 파괴되면 몇 시간 만에 이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복구해 놓았는데, 이 점은 미 공군 또한 놀라워 한 지점이었다.³⁵⁾ 다만 엄폐술과 수리기술이 정교하지는

NARA, NASM 4A 38993.

33)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1951), NARA, NASM 4A 38992.

34)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1951), NARA, NASM 4A 39005.

〈그림 8〉 현재의 미림비행장과 1952년 6월 14일 미림비행장 폭격(전, 중, 후)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1952), NARA, NASM 4A 39005; NARA, NASM 4A 39003; NARA, NASM 4A 39006.

〈그림 9〉 좌측부터 일제시기 서선합동전차노선, 해방 직후 전차노선, 6·25전쟁 당시 임시활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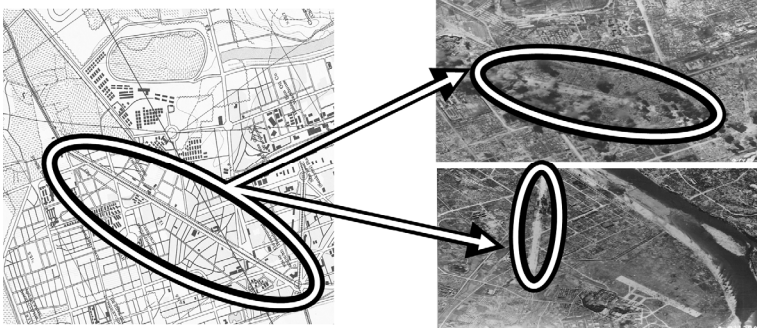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1951), NARA, NASM 4A 38992.

않아서 공군이 확인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폭격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활주로와 비행장을 향한 폭격은 정전협정이 임박하자 더 잦아졌다.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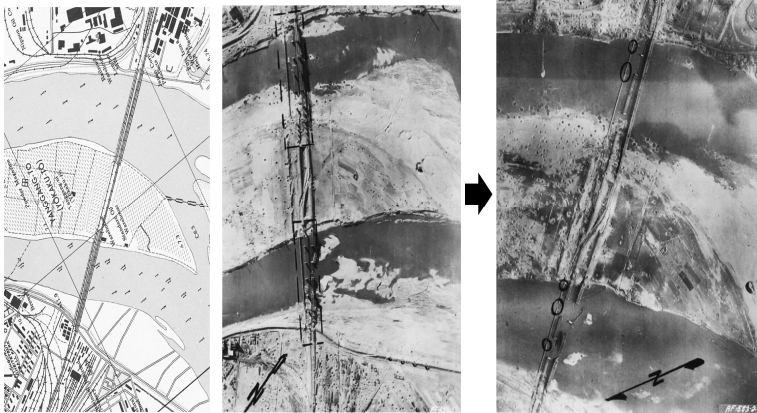
35)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1951), NARA, NASM 4A 38597; *FEAF Weekly Intelligence Roundups*, No.29, 1951.3.25.

〈그림 10〉 1951년 6월 17일 (위) 1951년 10월 10일(아래) 임시활주로 폭격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 NARA, NASM 4A 38991(1951); NARA, NASM 4A 38993(1951).

〈그림 11〉 1952년 4월 평양역-선교리 간 철도 폭격



주: 철교 폭격 후 동그라미 처진 인도교 구간을 추가로 폭격했다.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1952), NARA, NASM 4A 38612; NARA, NASM 4A 38994.

서였는데, 이 때문에 비행장과 활주로는 우선순위 상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폭격 대상이 되었다. 소이탄을 이용한 폭격정책 발표 이후 미 공군은 정전협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산군 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폭격정책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1951년 8월 스트랭글작전(Operation Strangle)³⁶⁾을 시작으로 1952년 3~5월 세처레이트작전(Operation Saturate)³⁷⁾, 1952년 7월 11일 프레스셔펌프작전(Operation Pressure pump)³⁸⁾을 각각 발표하면서 정전협정의 상황을 연합군 측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였다. 이 세 작전의 개요는 ‘차단작전’이었는데, 주로 보급품과 물자를 운송하는 철도를 파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폭격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차단작전’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보급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평남선과 경의선이 지나가는 평양역과 초차장이 위치했던 서평양 남쪽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고, 철도차단작전 이외에도 정전협정기간 내내 이루어진 야간폭격 또한 당시 민간인 지역에 큰 피해를 주는 요소였다. 미 공군은 1951년 10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주간폭격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낮 시간에 소련의 전투기인 MIG기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³⁹⁾ 당시 MIG기와의 교전으로 북한지역 폭격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폭격기사령부는 ‘쇼란(SHORAN, Short range navigation radar)’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상조건이나 보이지 않는 표적을

36) 1951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작전으로 교살작전, 질식작전으로 불린다. 공산군 측의 보급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과거 1년간 후방차단작전에서 경험한 바를 결합시켜 만든 작전계획이었다.

37) 1952년 3월부터 5월까지 지속된 작전으로 집중폭격작전으로 불린다. 스트랭글작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작전이며 철도 차단이 주된 목표였다.

38) 1952년 7월 10일 발표한 작전이다. 7개월간에 걸친 북한 내의 철도차단작전의 경험을 분석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작전방침이다.

39) 김태우, 『폭격』, 352~354쪽.

〈그림 12〉 1952년 10월 24일 폭격 이후 평양 철도조차장과 기관차의 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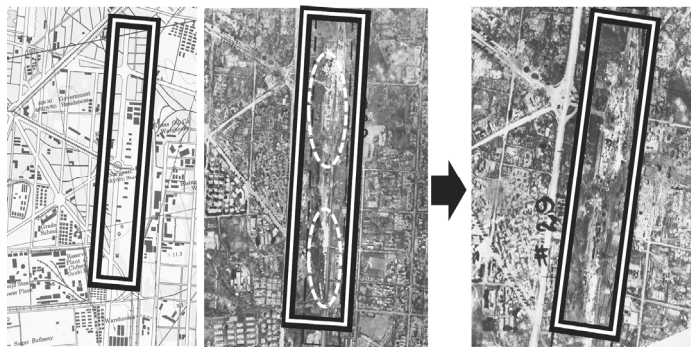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1952), NARA, NASM 4A 38907.

폭격할 수 있는 무선유도시스템을 B-29기에 도입했다. 하지만 숙련된 조종사가 아닌 이상 쇼란시스템의 적중률은 낮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미 공군 스스로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⁴⁰⁾ 즉, 오폭률이 높은 쇼란시스템에 야간폭격을 진행한다는 것은 오폭으로 인한 희생과 피해를 고스란히 북한 민간인들과 도시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다. 쇼란 시스템은 1952년 7월 평양에 대대적으로 행해진 폭격에서도 사용되었다. 1952년 7월 초부터 극동공군 사령부는 평양에 그동안 복구된 건물이나 시설들을 조사하여 폭격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대규모 폭격을 준비했다. 조사결과 30개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7월 11일 54대의 쇼란시스템을 장착한 B-29기가 야간폭격을 실시하였다.⁴¹⁾ 미 공군 자료를 통해 보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격을 수행하기 전, 전단지들을 뿌려 군사시설 근처에서 피신해 있으라는

40) 위의 책, 347쪽.

4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 517.

〈그림 13〉 1952년 7월 11일 선교리 북한 보급품 폭격



자료: 흰색 등그라미가 폭격 전 30피트 높이로 쌓여 있던 북한의 보급품인데, 폭격 이후 하얀 부분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보급품 선적지역 이외의 지역 또한 폭격의 피해를 입었다.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1952), NARA, NASM 4A 39009; NARA, NASM 4A 38912.

안내를 진행했다⁴²⁾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공호에도 폭격이 이루어져 공산당 간부 400~500명이 사상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민간지역에 피해도 상당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1952년부터 주요 폭격 대상이었던 “보급품 집적소”를 향한 폭격은 폭격 대상에 대한 전략폭격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지역을 초토화해 버리는 방법으로 작용하였다.⁴³⁾ 평양 선교리에서도 이러한 명목하에 보급품이 선적된 지역의 주변에 폭격의 피해가 나타났다.⁴⁴⁾

요컨대 6·25전쟁 기간 동안 미 공군의 평양 폭격은 목표 대상에 집중하는 전략폭격을 시작으로 도시 전체에 피해를 주는 초토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평양의 공간적 성격상 전쟁 초기에는 공장, 철도, 조차장

42) *Ibid.*, p.515.

43) 김태우, 『폭격』, 350쪽.

44)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1952), NARA, NASM 4A 39009; NARA, NASM 4A 38912.

등이 폭격목표가 밀집해 있던 공간으로 전략폭격 시 폭격목표로 지정되었다면, 정전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공산 측과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폭격 우선순위로 지정되었다. 즉 경공업 도시적 성격과 수도적 성격을 동시에 지녔기 때문에 폭격은 6·25전쟁 내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오폭 및 무차별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지역의 피해도 상당했다. 다만, 전쟁 기간 중에도 평양에서 군사위원회와 전원회의 등이 진행되었고 끊임없이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인민들의 노력도 있었다. 이러한 평양의 전시 상황에서의 일상 유지는 주로 폭격의 피해가 적었던 비폭격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하에서는 전쟁 중 북한이 이러한 비폭격지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비폭격지역의 전략적 활용과 전시행정의 유지

6·25전쟁 기간 동안 폭격으로 인한 평양의 피해는 심각했지만, 평양 행정구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략폭격의 의도와 같이 한정된 구역에 폭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공간도 존재했다. 주로 폭격이 집중되었던 대동강 좌우 강안의 바깥 지역과 현재의 모란봉 구역과 보통강 구역이 폭격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폭격이 집중되었던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그림 14>와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폭격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공간은 A, B, C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지역들은 6·25전쟁 기간 북한이 전략적으로 활용한 공간이었다.

평양은 폭격의 피해가 상당했음에도 부산을 임시수도로 지정했던

〈그림 14〉 6·25전쟁기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던 공간(A·B·C)



주: 음영부분은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공간이다.

서울과는 달리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여러 중요 행사를 진행하고 전시행정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시행정을 진행하기 위한 회의를 평양에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우선, 도시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동력 동원체계를 전쟁 직후 빠르게 수립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6·25전쟁이 발발한 2일 뒤인 6월 27일 최고상임위원회정령 「전시상태에 관하여」를 발표하여⁴⁵⁾ 전시상태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기업소, 자동차,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7월 1일에는 정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있어서」⁴⁶⁾를 발표하여 동원의 적용지

45) “최고 상임위원회 정령 전시상태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0년 6월 26일.

역, 대상자, 실시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전시복구사업에 노동력 동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법령은 불이행시 법적 처벌이 뒤따르는 강제성이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꼭 이행해야만 하는 명령이었다. 두 번째로 국가 행정이 정지되지 않게끔, 전시행정체제와 당행정체제를 분리하여 각 사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북한은 전시체제가 선포된 이후 전반적인 국가 정책에 대한 행정법령은 군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지만,⁴⁷⁾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 등은 별도로 돌아가고 있었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중요 시기마다 전생 수행 상황에 대하여 총괄하는 기구로서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⁴⁸⁾ 그리고 이렇게 평양 내에서 전시·당 행정처리가 가능했던 이유에는 앞서 언급한 폭격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로 위의 〈그림 14〉에서 A 지역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쟁이 개시됨과 동시에 폭격의 피해를 받았던 평양은 다른 지역들보다는 빠른 속도로 방공정책들을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이 방공정책들의 기반에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 동원이 필수적인 것이었다. 전시수송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평양시민들은 대동교와 철로의 복구에 1950년 한 해에만 연인원 1,004,000여 명이 동원되었다.⁴⁹⁾ 이러한 복구 작업으로 인해 1951년 무차별폭격 작전들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남반부 해방지구 인민관광단」에게 평양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은 38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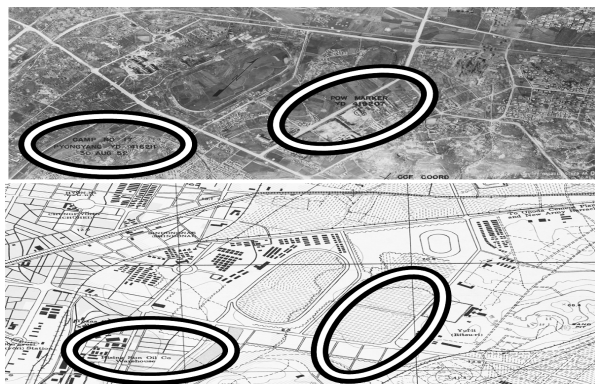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0년 7월 2일.

47)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0년 6월 27일.

48)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379~380쪽.

49)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 458쪽.

〈그림 16〉 선교리 근처 포로수용소 위치



자료: “Air Force Activities—Korea—1952— Bombing,” NARA, NASM 4A 35487(1952).

에서 6·25전쟁 기간 동안 11차례의 군사위원회와 20차의 내각협의회 소회의가 이루어졌고, 평양을 방문한 각국의 대표들과의 만남도 이 내각 사무국 건물에서 진행하였다. 평양시의 동명을 보면 크게 ① 과거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와, ② 인명으로 개명해서 쓰는 경우, ③ 해방 이후의 공간의 경험을 담아 개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A 지역의 경우에는 ③에 해당한다.

6·25전쟁시기 전시행정을 맡았던 이 지역을 북한은 ‘전승혁명사적지’라고 명명하고 인흥리의 일부를 전승동, 향미동 등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집무를 보던 사무실과 당시 사용했던 식당, 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던 청사 등을 보존하였고, 1970년에는 전승혁명사적관을 개관하여 북한에서 주장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⁵²⁾

51)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 128쪽.

52) 위의 책, 127~134쪽.

다음으로 폭격의 피해가 적었던 공간은 <그림 14>의 B 지역이었다. 이 지역 또한 6·25전쟁 이전까지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폭격목표물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포로수용소와 평양에서 폭격으로 인해 집을 잃은 전재민들의 숙소가 제공되는 공간이었다. 6·25전쟁시기 정전 및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것이 포로였기 때문에 포로수용소는 폭격이 빈번한 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평양 지역 중에서도 폭격의 피해가 적은 지역에 수용소를 마련해야 했다.⁵³⁾

포로수용소 이외에도 B 지역은 주로 폭격으로 집을 잃은 평양 전재민들의 수용소가 설치된 공간이기도 했다. 이것은 6·25전쟁시기 발표되었던 「전시인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2>는 당시 발표된 대책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평양에서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해지자, 북한 당국은 전재민 구호 대책으로 전쟁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전재민 수용소와 양식배급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살림집과 관련된 「내각결정 187호」는 전재민들의 단순 수용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한 것으로 도시경영상과 각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에게 각 도 소재지마다 시공사업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시공사업소에서는 주택을 간단히 보강할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하거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지낼 곳을 제공하기 위해 국유건물들을 보수하여 대여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미 파괴된 건물들에서 쓸 수 있는 건설 도구와 자재들을 회수하여 적당한 장소에 토굴식 살림을 지어 전재민들이 임시로 살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53) “Air Force Activities-Korea-1952-Bombing,” NARA, NASM 4A 35487(1952).

〈표 2〉 전시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내각결정

내각 결정	채택 날짜	결정서 제목	채택된 결정서의 기본내용	실제 해결된 내용
175호	1950.11.20	전재민구호대책에 관한 결정서	전재민수용소를 설치한다. 전재민들의 주택조건 및 양식배급조건을 보장한다.	1951년 2월까지 평양시에 10개소의 전재민 수용소를 설치하였다.
187호	1950.12.12	해방지구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	전재민들에게 살림집을 신축하여 주어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해방지구인민들과 전재민들을 위한 식당, 상점 등 상업 급양봉사시설을 건설하여 편리를 보장한다.	1951년 2월까지 평양시에 2505호의 살림집이 건설되었다. 1951년 3월부터 4월 사이 3,000호의 살림집이 건설되었다. 인민시장이 복구되고 시내 각 곳에 상업급양시설이 꾸러졌다.
197호	1951.1.25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제 대책에 관한 결정서	살림집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데, 자재, 자금 등 경제적 방조를 준다. 미납된 각종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	1951년 5개 전재민상점이 꾸러졌다. 매호당 살림집건설에 쓰도록 2만 원까지의 현금을 3년 기한으로 용자하도록 하였다. 1949년까지 미납된 각종 조세부담을 면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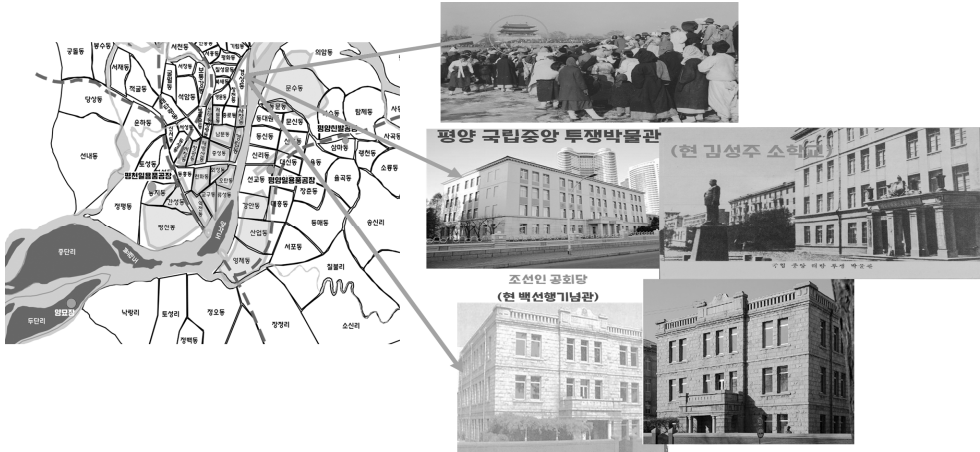
자료: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119쪽.

전쟁 기간 동안 수립하였다.⁵⁴⁾

이 때문에 수용소에 가지 못하는 평양시민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보수하거나 방공호, 궁릉식⁵⁵⁾으로 주택을 보수하여 원래 주택에 살아

54) “전재민구호사업 활발히 진행,” 『로동신문』, 1951년 3월 2일; “전재민들 생활 날로 안정,” 『로동신문』, 1951년 4월 28일.

〈그림 17〉 6·25전쟁 기간 신설된 중소공장들과 경상리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물들



자료: 필자 개인 소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소장 사진이다.

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일제시기 조선인들의 지역이라 불리던 본평양 북쪽 지역, 즉 〈그림 14〉의 C 지역의 경우 폭격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C 지역은 일제시기부터 조선인들 사이에서 주택과 시장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이는 해방 이후, 6·25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공산주의운동사⁵⁶⁾의 저자이자 6·25전쟁 기간 동안 평양에 거주했던 이정식의 회고에 따르면,⁵⁷⁾ 경상동, 창천동, 영문동, 북새동, 칠성문동, 평화동 등에는 폭격의 피해가 거의 없었고, 쌀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 기간 동안 흰밥과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었다고 할 정도로 본평양 남쪽지대와의 차이가 있었다. 전재민들의 주택

55) 궁륭식구조(穹隆式構造)는 아치에서 발달되어 조적(組積), 돌, 콘크리트 따위의 재료로 반원형을 가지는 곡면 구조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56) 스킨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한홍구 옮김(서울: 돌베개, 1986).

57) 이정식, 『이정식 자서전』(서울: 일조각, 2020), 254쪽.

문제뿐만 아니라 전재민 구제 대책에는 생필품 조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었다. 폭격의 양상이 1951년부터 무차별적으로 변화한 이후 낮 시간 이동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구입을 위해 주간에 이동해야 했던 평양 주민들이 폭격으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잦아지자, 지하시장이나 동굴에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피해를 감소시키는 정책들을 마련하였다.⁵⁸⁾ 지하 인민시장에서는 식자재 이외의 생필품 또한 거래되었다. 6·25전쟁 개시 직후부터 산업시설들을 향한 폭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당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생산공장을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북한은 전시중임에도 기존에 파괴된 공장을 복구함과 동시에 반지하시설의 산업시설들을 평양 내에 신설하였다. 신설된 공장은 <그림 17>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폭격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지역에 설치되었고,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일용품공장의 경우에는 동평양에 1개, 서평양에 1개를 만들어 전시수요를 충당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A, B, C 지역 외에도 모란봉의 칠성문, 을밀대, 대동문과 같은 문화유적들이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경상리 주변에 있던 일제시기 건물들 또한 현재까지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되었다.

4.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방공정책 실시

전쟁시기 평양을 떠나지 않고서 여러 행정사업을 지속하였듯이, 산

58)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 122쪽.

업시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양에서 이주시키지 않은 채 방공시설물을 구축하며 유지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우선적으로 1950년 8월 2일 「군사위원회 명령 39호」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하달하여 군대, 내무기관, 정권기관, 공장, 광산, 직장, 가두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해당 거주인원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피신처와 음폐호 건설, 주택 위장방법을 지시하였다.⁵⁹⁾ 이 외에도 소방시설 설치와 사용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방공시설의 기술적 지도를 의무화하였으며, 인민반단위로 방공대가 조직되어 이를 지속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그 결과 평양 곳곳에 수백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방공호 굴설(掘設)작업이 진행되었고, 전기시설까지 갖춘 공동 방공호 80여 개와 대피호들이 시 여러 곳에 건설되었다.⁶⁰⁾ 전쟁 중에도 지하에 행정시설과 문화시설을 구축하여 국내외적 행사를 꾸준하게 개최하였다. 해방 직후 평양 신사자리에 건립된 모란봉극장이 주로 행사장소로 이용되었는데, 이 모란봉 극장은 1950년 9월 평양시 인민위원회 결정 제36호 「지하구락부 건설에 대하여」가 채택됨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본래 공사는 10월 18일 착공, 11월 15일 준공을 예정하였으나, 한국군의 평양점령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1년 11월 준공되었다. 그 덕분에 정전회담시기 미군의 폭격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과학자대회, 외국인 초청 5.1절 기념회 등을 이 지하극장에서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이후 언급할 「평양시복구 총계획도」의 최초 공개 행사 또한 이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일상에서 폭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게 등화관제에

59) 『민간 방공지도원 수첩(서울시 민간 방공부)』, NARA, RG 242, SA 2010, Item33.

60) “방공사업강화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0년 8월 5일.

〈그림 18〉 6·25전쟁시기 완공된 모란봉 지하극장과 1952년 5.1절 기념회 사진



자료: 필자 개인 소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소장 사진이다.

〈그림 19〉 유인물로 배포된 방공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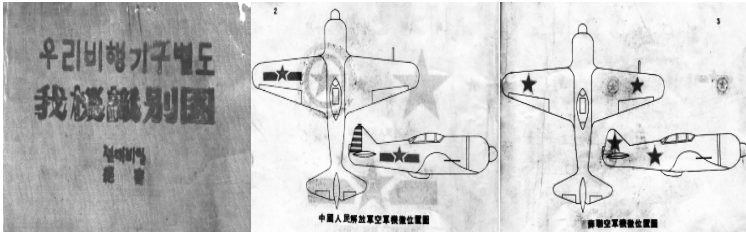


자료: 『민간 방공지도원 수첩(서울시 민간 방공부)』, NARA, RG 242, SA 2010, Item 33.

대한 방법을 알리고 방공시설, 소방대책, 방공자재 설치, 방공훈련 등 종합적인 ‘민간방공’ 대책을 마련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민간방공 대책에는 폭탄의 종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물 설비 방법, 인명피해 구급대책, 건물을 검정으로 칠하는 도료위장과 지형·지물 위장 등에 대한 안내가 명시되어 있었고, 공습으로 인한 화재에 대비하는 소방대책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⁶¹⁾ 그리고 전쟁 중에도 학교 교육과 공장에서의 노동은 지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특설방공대의 활동」을 따로 규정하여 수업 중이거나 노동 중에 공습경

61) 『200611 방공요강(유인물)』, NARA, RG 242, 09/1953-01/1958; Series.

〈그림 20〉 유인물로 배포된 우리비행기구별도



자료: 『203143-203149 우리비행기 구별도(1951) 외』, NARA, RG 242, 09/1953 - 01/1958 ; Series.

보가 울릴 시 해야 하는 대책들도 만들어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⁶²⁾ 각 전투기의 모양과 폭탄의 위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두어 폭격공습 전후 민간인들이 빠르게 각 사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다.⁶³⁾

방공에 대한 대비책 마련 이후 북한은 신속하게 파괴된 공간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미 공군 기록에 따르면 폭격으로 파괴된 비행장이 완벽하진 않지만 빠르게 복구하였다는 보고서 기록이 종종 등장하는데,⁶⁴⁾ 이는 비행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민간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마련하는 것 또한 시 당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당시 신문에 따르면 평양의 주택지역에 가해진 폭격으로 1951년 한 해 동안만, 8만 동의 살림집 가운데 6만 4천 동의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⁶⁵⁾ 수치의 신빙성은 재고할 필요가 있

62) 『민간 방공지도원 수첩(서울시 민간 방공부)』, NARA, RG 242, SA 2010, Item33.

63) 『203143-203149 우리비행기 구별도(1951) 외』, NARA, RG 242, 09/1953-01/1958; Series.

64) FEAF Weekly Intelligence Roundups No.29(1951.3.25).

65)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이 발표한 조선에서의 미국범죄에 관한 보고서,” 『로동신문』, 1952년 4월 19일.

다만 파괴된 살림집들의 수가 상당했고, 파괴된 살림집에 대한 보수와 대체 살림집의 건설은 전쟁기간 내내 북한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는 점은 유추할 수 있다. 인명피해만큼이나 도로 및 철도 시설의 파괴도 전시 물자수송을 보장해야 하는 북한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각 도·시·군 내무부장에게 도로와 교량 피해 복구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전선과 후방의 수송관계를 원활하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지역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군사명령은 하달되었고, 이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나 노동인력들은 모두 지방인민위원회의 예산과 주민동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⁶⁶⁾ 이러한 주민동원을 통한 복구사업은 1951년 복구건설대가 조직되면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복구건설대는 평양시내의 인민위원회 산하에 설계 부문, 건설, 문화 부문 일군들이 재건계획을 세우고 측량작업을 진행했으며 군수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및 철도 복구사업 또한 꾸준히 진행하였다.⁶⁷⁾ 복구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중요공장을 우선적으로 지하나 안전한 곳으로 이설하였다.⁶⁸⁾ 그리고 계획적인 건축자재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1951년 건축용구생산을 전문으로 지도하는 관리국을 만들고, 여러 공장들이 전쟁기간 동안 폭격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평양시복구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나온 1952년 8월에는 전쟁이 한창이었지만 조선로동당 정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멘트공장, 벽돌공장들과 함께 기와공장, 목재공장, 철근콘크리트 부재공장, 쪽무이판공장, 건구공장 등

66) 『비문서집(동면분주소) 1950년』, NARA, RG 242, SA 2010, Item119.

67) “평양시 복구재건사업 활발히 진척,” 『로동신문』, 1951년 1월 13일.

68) 리화선, 『조선건축사』 2(서울: 발언, 1993), 316쪽.

건축자재공장 신설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되었다.⁶⁹⁾ 이렇게 공장을 사수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한 결과 전쟁 중에도 승호리 시멘트공장을 비롯한 중요 시멘트 공장들이 복구·확장되었고, 각 도·시·군들에 벽돌공장과 여러 건설자재 생산공장이 신설되었다. 정전협정 막바지였던 1953년 6월 김일성은 벽돌공장을 신설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군사위원회 명령 제368호」를 발표하여 내각의 각 성·국에 벽돌공장건설에 필요한 자재, 설비 마련을 독려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부지를 정하고, 공장건설에 군수용화물자동차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53년 6월 전후수도건설에 필요한 벽돌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강남 벽돌공장이 건설되었다.⁷⁰⁾ 건축자재생산공장 이외의 중요기관, 경공업공장, 기업소의 경우에는 반지하 구조물을 건설한 후에 거기에 이설(移設)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주로 지하시설들은 폭격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지어졌고, 지상에 있는 건물의 경우 최대한 방탄벽을 쌓는 형식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서평양 철도공장에서는 지하공장을 건설하고 전시생산을 계속하였으며 평양방직공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천을 생산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수요와 전시군복 수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1950년과 1951년에는 평천일용필수품공장, 평천신발공장, 평양일용품공장, 평양식료품공장, 알루미늄 및 차수리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어 전시물자 생산을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하였다.⁷¹⁾ 1952년 미 공군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생산시설들이 지하로 이설된 점을 언급하면서 폭격이 더 이상 이러한 공장들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나와 있다.⁷²⁾ 당시 이러한 내용이 미

69) 평양향토사편찬위원회, 『평양지』, 430쪽.

70) 리화선, 『조선건축사』 2, 328쪽.

71)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 1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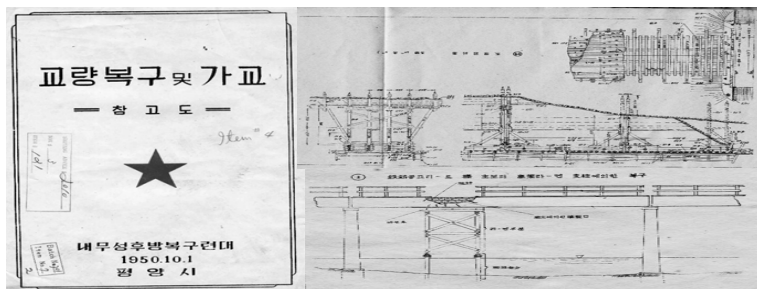
공군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사실을 보면 이설된 북한의 공장들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쟁 중에 만들어진 공장들은 지하공장의 내부 기본공간은 큰 경간으로 된 궁륭식(아치) 구조로 건설되었으며 벽과 천장은 영구적인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었다. 공장의 부속 건물들은 지하 공장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설하였다. 어느 한 지구의 공장에서는 지하공장 밖에 미리 궁륭구조로 부속건물의 내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본지하공장을 건설하면서 나온 잡들(버력)들을 궁륭구조 위에 두텁게 덮어 지하구조물을 만들었다. 다른 한편 적지 않은 공장들에서는 기본공장 입구 가까이에 반지하 구조물 혹은 방탄벽이 있는 구조물형식으로 부속 건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경공업공장들은 가능한 분산배치하여 건설하였는데, 실제로 방직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심 부분에 방적공장을 배치하고 직포공장들을 여러 곳에 분산배치하였다.⁷²⁾ 전쟁 중 서울에 있던 교육기관들이 부산으로 잠시 이전했듯이 평양에서도 학교들의 이설과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학교 건물의 이설 및 보강공사는 지상건물 형식, 반지하건물 형식, 지하구조물 형식,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가 결합된 형식으로 건설되었다. 지상건물은 폭격이 비교적 적은 지방에 건설되었는데, 창 밑까지 방탄벽을 쌓은 것과 쌓지 않은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었다. 반면 폭격의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반지하 건물형식과 지하구조물 형식으로 건물이 건설되었다. 반지하 건물형식은 흔히 창 밑까지는 지하이고 그 윗부분만 지상에 있는 움 형식이었고 지하구조물 형식은 대부분 지하 터널 형식으

72) 김태우, 『폭격』, 364쪽.

73) 리화선, 『조선건축사』 2, 317~318쪽.

〈그림 21〉 내무성 후방복구연대의 교량복구 참고도



자료: 『교량복구 및 가교, 내무성 후방복구연대, 1950.10.1.』, NARA, RG 242, SA 2010, Item121.

로 된 것이 많았다. 폭격이 심한 지대들에서는 방탄벽이 있는 지상건물 혹은 반지하 건물을 짓고 그것을 교실로 이용하였으며 교실(주로 복도)과 직접 연결시켜 굴을 뚫어 유사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였다.⁷⁴⁾ 위와 같은 방공건축물들의 설계는 국가단위에서 조직한 「후방복구연대」에서 담당하였다. 전쟁이 시작되고 6월 첫 폭격을 경험한 후 김일성과 북한 내각의 간부들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7월 수도의 시설 부문 건설 역량이 하나의 군사체계에 의해 움직이도록 「후방복구연대」를 조직하였다.⁷⁵⁾ 이들은 주로 다리복구용 예비자재, 조정부재들을 미리 준비하는 체계를 세우고 이 사업에 많은 평양시민들이 동원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74)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이 발표한 조선에서의 미국범죄에 관한 보고서,” 『로동신문』, 1952년 4월 19일.

75) 후방복구연대 자료는 노획문서군에 남아있다. 『교량복구 및 가교, 내무성 후방복구연대, 1950.10.1.』, NARA, RG 242, SA 2010, Item121; 『1950년도 사업계획서철, 계획참모, 내무성후방복구연대』, NARA, RG 242, SA 2010, Item113; Item112; 『3개월간 행정 정치교양사업 문건철, 내무성 후방복구연대 문화부』, NARA, RG 242, SA 2010, Item112.

이 외에도 반(半)군사지휘체계를 가진 군용도로관리국(1950년 10월), 내무성시설대(1950년 12월)이 조직되었고, 이 두 조직은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도로를 복구하거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전시 물자수송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이 두 조직에서 처음 건설한 우회도로가 룡성에서 화성리와 미림을 거쳐 중화행도로와 연결된 약 25km의 우회도로였다. 뒤이어 룡남동가로에서 대동강의 흥부나무다리를 건너 문흥동지구, 의암동지구와 사동을 거쳐 미림으로 가는 도로와 문흥동에서 북수동을 거쳐 사동으로 이어진 도로가 차례로 건설되었다.⁷⁶⁾

5. 맺음말

6·25전쟁기 북한지역에 이루어진 미공군의 폭격은 전략폭격이라는 원칙이 있었음에도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도시 파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파괴 양상은 도시마다 성격을 달리했는데, 흥남, 함흥 등의 수력발전소를 가까이 가지고 있는 중공업도시들의 경우에는 평양보다 더 심각한 폭격피해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채 미공군이 평양을 ‘완파’했다는 식의 서술은 ‘신화’처럼 이견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이러한 완파의 신화는 ‘사회주의 도시 평양’의 탄생이라는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평양의 폭격 양상은 90% 이상이 파괴된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의 국경도시·중공업도시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전략폭격의 원칙위에서 대동강을 기준으로 동서강안지역에 주로 폭격이 이

76)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 120쪽.

루어졌다. 소이탄 폭격 또한 동평양 남쪽, 즉 평양역 근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란봉 근처와 본평양 지역의 북쪽은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모란봉의 문화재들도 잘 보존된 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폭격 양상이 완파의 신화를 만들어 내고 '사회주의' 도시 평양을 탄생시켰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서사는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실 상 도시의 성격이 변한 공간은 일부 한정되어 있고, 그 지역은 지금까지도 상징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일제시기부터 공업·상업 지역이었던 공간은 그 성격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즉 평양폭격의 신화는 이러한 공간의 연속적인 측면을 배제한 채로, 단절성만 강조시키고 싶어 했던 북한 수뇌부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양을 둘러싼 '신화'들이 과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완파와 도시재탄생의 신화는 재고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화가 현재까지 비판적 의견 없이 수용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지점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북한 정치가들의 통치술과 더불어 1953년 평양시복구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파괴된 공간을 어떤 방침 아래 복구해 나가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접수: 6월 20일 / 수정: 8월 5일 / 채택: 8월 9일

참고문헌

1. 북한자료

1) 단행본

조국전선조사위원회보도, 『미제와 리승만도당들의 죄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1).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평양향토사편찬위원회, 『평양지』(평양: 국립출판사, 1957).

2) 신문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이 발표한 조선에서의 미국범죄에 관한 보고서,” 『로동신문』, 1952년 4월 19일.

“방공사업강화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0년 8월 5일.

“전재민구호사업 활발히 진행,” 『로동신문』, 1951년 3월 2일.

“전재민들 생활 날로 안정,” 『로동신문』, 1951년 4월 2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0년 6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0년 7월 2일.

“최고 상임위원회 정령 전사상태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0년 6월 26일.

“평양시 복구재건사업 활발히 진척,” 『로동신문』, 1951년 1월 13일.

3) 기타 자료

『교량복구 및 가교, 내무성 후방복구련대, 1950.10.1.』, NARA, RG 242, SA 2010, Item121.

『민간 방공지도원 수첩(서울시 민간 방공부)』, NARA, RG 242, SA 2010, Item33.

『비문서집(동면분주소) 1950년』, NARA, RG 242, SA 2010, Item119.

『1950년도 사업계획서철, 계획참모, 내무성후방복구련대』, NARA, RG 242, SA

2010, Item113.

『200611 방공요강(유인물)』, NARA, RG 242, 09/1953-01/1958; Series.

『203143-203149 우리비행기 구별도(1951) 외』, NARA, RG 242, 09/1953-01/1958; Series.

『3개월간 행정 정치교양사업 문건철, 내무성 후방복구련대 문화부』, NARA, RG 242, SA 2010, Item112.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강인구·정남범, 『6·25전쟁과 항공전: 미국동공군의 활약을 중심으로』(계룡: 공군대학, 2002).

김태우, 『폭격』(파주: 창비, 2013).

리화선, 『조선건축사』 2(서울: 발언, 1993).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와이블러드, 윌리엄 T.(William T. YBlood), 『극동공군 사령관 조지 E.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의 6·25전쟁 일기』, 문관현 외 옮김(서울: 플래닛미디어, 2011).

이정식, 『이정식 자서전』(서울: 일조각, 2020).

2) 논문

박동찬, “RG 342 6·25전쟁기 미 제5공군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문서 해제,” 『미국 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해외사료총서 7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4).

3. 국외 자료

1) 단행본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1983.

2) 기타 자료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NARA, NASM 4A 38957(1950).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NARA, NASM 4A 38951(1950).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NARA, NASM 4A 38917(1950).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NARA, NASM 4A 38944(1950).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NARA, NASM 4A 38956(1950).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NARA, NASM 4A 38969(1950).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NARA, NASM 4A 38970(1950).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0 Bombing, NARA, NASM 4A 38973(1950).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 NARA, NASM 4A 38908(1952).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 NARA, NASM 4A 38909(1952).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 NARA, NASM 4A 38991(1951).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 NARA, NASM 4A 38993(1951).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 NARA, NASM 4A 38992(1951).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 NARA, NASM 4A 39005(1951).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1 Bombing, NARA, NASM 4A 38597(1951).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 NARA, NASM 4A 38612(1952).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 NARA, NASM 4A 38994(1952).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 NARA, NASM 4A 38907(1952).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 NARA, NASM 4A 39009(1952).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 NARA, NASM 4A 38912(1952).

Air Force Activities Korea 1952 Bombing, NARA, NASM 4A 35487(1952).

FEAF Weekly Intelligence Roundups, No.29, 1951.3.25.

FEAF intelligence roundup, No.53, 1951.9.9.

RG 242(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 Seized, 1675~1983).

RG 554(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57).

War Bombing and Urban Air Defense Policy in Pyongyang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Kim, Tae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on the Korean War has been carried out give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war. However, the effects of the Korean War on cities have never been analyzed other than from the perspective of ‘destruction.’ Although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is that studies on both Seoul and Pyongyang have produced few fin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history, some studies mentioning the war and the cities were focused only on urban reconstruction and failed to consider the exact status of destruction and differences in urban composition before and after ideologies were reflected in the reconstructed cities.

In this study I question the accuracy of describing Pyongyang after the war as “a city reconstructed from total destruction.” The question about how and how much Pyongyang was bombed has not been settled,

and no one has attemp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urban composition of Pyongyang before and after the war. Therefore, I seek to understand the degree of damage to Pyongyang caused by the Korean War and whether 'total destruction' is accurate. Based on this, this study uncovers which districts were newly reorganized in urban planning reflected in *the General Plan of Reconstruction of Pyongyang* formulated in 1951, and which districts preserved their prior urban structures. Through this process, I identify how much the political viewpoints of North Korea have been reflected in districts of new urban planning, and how much the experience of urban redevelopment during the first five years after national liberation was applied to reconstruction after the war.

Keywords: Korean War, Far East Air Force (FEAF), Fifth Air Force (FAF), FEAF Bomber Command, Pyongyang, bombing, anti-aircraft defense, General Plan of Reconstruction of Pyongyang, postwar reconstruction.